

“완전연소 될때 파란불꽃 생겨요”

산문박의 禪

썬웨이보일러 박민선 회장



“게을러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백년을 산다해도 헛세 쉼이 없는 단 하루만 못하다는 법규경의 가르침은 그대로가 저의 기업철학이자 가훈입니다.”

경영자와 생산자 소비자의 연결고리로 이끄는 사업의 현장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부모 형제 자매 아남이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한다는 (주)썬웨이보일러 박민선 회장(65). 65년 세운상가에서 신진상사라는 이름으로 업계에 뛰어들어 (주)신진기계로, 다시 (주)썬웨이보일러로 보일러업계의 선두를 달리기까지 30년의 세월을 생산과 경영의 일선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삶을 일구어 왔다.

설치·수리도 직접 ‘역책’

가정용 보일러에서 농·산업용보일러까지 각종 기기에 이르기까지 박민선회장이 만들어낸 제품은 무려 20여종에 이른다.

닌 인간적인 신뢰감의 축적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사업의 진면목이라고 믿고 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당히 거부하고 자신을 추스려 다시 일어서 성공의 오기를 다졌던 역책이 회장이 바로 박민선씨다.

남자들도 하기힘들다는 사업을 하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과 부딪칠 때마다 박회장은 9살때 부모를 여의고부터 항상 마음속의 부모님으로 의지해 왔던 부처님께 매달리곤 했다.

“오장육부가 모두 갖춰져야 제대로된 사람구실을 하듯이 보일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술적, 환경적 조건이 조화를 이뤄야만 파란 불꽃의 완전연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의 눈부신이란 아마도 수행자들이 오랜 수행을 거쳐 마침내 정각에 이르렀을 때의 깨달음의 환희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보일러도 사람’ 나를 바쳐 만들때 소비자 사랑 부처님 법따라 깨어있는 회사 운영...분규 전무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일본에서 수입한 온 부품들을 보니 별것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정계전에서 부품을 사다가 매일 저녁 집에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날엔 도매상에 내다팔곤 했지요.”

버너, 시계줄, 석유난로 등의 부품 소매업에서 보일러 판매로 전환하고 부터 박회장은 보일러기사를 따라 보일러 설치와 고장수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대형공장과 장어장 등 전국 곳곳에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자신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성실성으로 유정물을 키워내듯 세심함 속에서 사업도 생명력을 지녔다는 것을 박회장은 스스로 믿게 되었다. 농부가 불에 씨를 뿌려 뜨거운 여름내내 온몸으로 가꾸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것은 노력한 만큼, 발로 땀 흘린 만큼,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멀리 미래지향적으로 연기의 법칙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박회장의 경영론이다.

그리고 모든 권모술수와 냉혹함이 아

인고의 수행 끝에 얻어지는 깨달음과 같이 박회장에 있어 오랜 연구 개발 끝에 새로 태어나 완전연소의 푸르름을 발하는 보일러의 불꽃은 깨달음의 결정체처럼 느껴진다고.

박회장의 경영은 인제경영에서 한층 그 빛을 더한다. 노사화합과 안정,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향상 등에 관심을 가지며 인자한 어머니같은 경영을 통해 회사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노사분규도 없었던 사실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한다. 노사화합의 모범을 보여 노동부장관상까지 수상하기도 했던 것은 바로 부처님 법을따라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해가려는 박회장의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모든 경영의 토대들을 바탕으로 87년에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영하 30도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전량을 제공해 호평을 받기도 했고, Q마크 획득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확보로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89년 리비아 2차 대수로 공사에 전기온수기 및 보일러를, 90년에는 소련 시베리아

산림개발현장에 보일러 및 압력용기전량을 납품해 그 성능과 제품의 우수성을 확증받기도 했다.

30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박민선회장과 썬웨이보일러 가족은 모두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란 긍지로 인제기 세계경쟁시대에 대비한 신제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시장 개척 목표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책의 일원인 농촌산업향상을 위한 각종 농업용 보일러 및 그린하우스의 바닥방시시스템들을 개발, 농민들에게 희소식을 안겨주었던 것.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가 공동개발한 95% 이상의 고효율 가스보일러의 관련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함으로써 국내보일러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은 것도 모두 공업진흥의 가르침을 자신의 영역에서 수행해 내기위한 치열한 방편의 실연이었다.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무대로의 도약! 이것이 썬웨이보일러 제일의

창업이념이자 제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박회장은 지난 93년부터 중국 하얼빈에 중국과 합작법인을 체결, 제품을 출하하며 세계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인생살이가 그렇듯 사업도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는 법. 중국과의 합작에 있어서도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모든 관계업무에서부터 관계법령까지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며 최선의 선택을 통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애쓰고 있다. 그것은 바로 30년간 보일러와 함께 불꽃같은 삶을 살아온 박회장의 인생 그 자체이기도 모른다.

“주부마음은 주부가 알잖아요!” 라는 광고멘트로 자사제품 광고에 출연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던 박민선회장.

“소비자의 사랑으로 이어온 지금까지의 30년처럼 앞으로도 소비자를 위한 우수 제품을 만들어 내는것, 그것으로 제 삶을 회향합니다.”

이은자 기자



삽화·이기선

무욕으로 최상락의 경지를...

법규경은 부처님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초기 경전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어(詩語)로 구성되었다. 읽으면 바로 부처님의 크나 큰 자부심을 감동하게 된다.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이듯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자를

죽음은 순간에 있어간다. 마치 잠든 마을을 흥수가 휩쓸어 가듯이

이 계승은 (법규경) 제 4장 ‘꽃의 장’ 일구이다. 우리들 인간은 외형적 사물이나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고급한 물건을 구하려고 하고 환경이나 주기가 우람한 곳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조그만 거처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남보다 더 나은 곳을 선택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39

안분(安分)

꽃을 찾아 헤매고 있다. 꽃향기가 그윽하게 풍겨 오더라도 꽃이 열매가 아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 꽃만 바라고 사는 인생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쾌락은 일시적이다. 영원한 삶

는 시집에 도달하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불교의 사상은 연기사상이고 또한 응보의 사상이다. 연기사상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법계속에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게 한다. 이것과 저것, 저것과 다른 것, 다른 것과 이것이 모두 연결고리가 되어있고 순환고리로 상관되는 것이다. 이 상관관계를 맺어가면서 원인과 결과대로 발전 연속하는 것이다.

쾌락만 좇다보면 “마음 황폐”

은 순간적인 향기로만 이룩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인공초처럼 겨울을 이기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뿌리를 내리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쾌락적인 행복에 잠겨 있는 동안 죽음이란 세계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쾌락 이외의 것에도 다가오는 것이지만, 쾌락 그것이 제일이라고 아집하고 있는 인생에게 비극을 주는 것이다. 잠들어 있는 마을에 갑자기 닥친 홍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강물은 온통 마을을 휩쓸고 만다. 이는 쾌락의 만능에 틀림없는 시간에 닥쳐오는 허무·무상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은 시간시간에 정직한 일을 하여야 한다. 허송한 일을 하면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정직하고 알뜰한 일을 풀어서 열심히 하면, 일의 성취도가 자급 바로 이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이므로

정직·성실한 삶의 가치

결과를 아름답게 하려면 원인을 잘 찾아 나서야 한다. 원인이 맑고 알뜰한가, 정직하고 성실함이 있는가를 살펴서 골라야만 한다. 아무것이 나 마구 손대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부질없이 자행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황폐

사람의 눈은 맑아야 한다. 눈이 맑은 사람은 마음이 맑은 사람이고, 마음이 맑은 사람은 참부모 행위하지 않는다. 언제나 깨끗한 하면 행복 행지 모르나 쾌락의 종말을 만나게 될 것이다. 노동을 열심히 하면 임금회득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교는 어디서나 어느 때에 삶의 관계를 맺게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관계의 의미를 벗어나 물질이나 욕망의 기쁨을 희구한다면 한밤중의 홍수를 만나는 비극자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대물적 현장에서 벗어나는 마음만 가지면 지금 어디서 닥쳐오는 홍수도 대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흥수, 정신적 흥수 이 모든 것은 파멸의 길이다. 우리들 앞에 파멸적이고 파멸이 닥쳐오는 것을 변연히 알면서 이에 휩쓸려 사는 것은 안분(安分)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분(知分)은 안분(安分)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경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축

● 세계인을 위한 ●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틀림없이 따라다닌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비만으로 고민하신 佛子님 특별 상담 환영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 전 영양소(한국총판)

전화:(02) 929-0211~4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작하여 만든 제품.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중국)고위 건부 주거지/모택동 특소영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김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